

경북도, ‘초격차 APEC’ 위한 현장 최종점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 후 8번 방문
경제전시장, 정상회의장 등 점검
이철우 “흔들림 없이 준비해 와
수송·숙박 등 9개 상황실 운영”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 현장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개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김민석 총리는 23일 김해공항에서 VIP 입국 경로 등 항공시설을 점검한 뒤, 취임 이후 여덟 번째로 경주 APEC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제전시장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우양미술관 ▲정상 만찬장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현장도 둘러봤다.

경제전시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전시장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끄는 미



(왼쪽부터)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종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경북도

레’라는 주제로 조성됐다”며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이차전기·모빌리티 등 첨단미래산업관, 그리고 경북·울산 등 55개 기업이 참여한 지역기업관으로 구성돼 있다. APEC 기간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경제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전시장 맞은편의 K-테크 쇼케이스에는 삼성, 현대차, 메타 등 국내외 주요 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

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와 이철우 지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문화행사 개최 예정지인 우양미술관, 정상 만찬장으로 준비 중인 라한호텔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김민석 총리는 “외국 정상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 등 모든 면에서 감탄할 수 있

도록 초격차 APEC을 만들겠다”며 “이번 회의를 서울 중심의 외교에서 지방 중심의 문화·관광 외교로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는 시점인 만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의 APEC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정치 공백 속에서도 경북은 작년 6월 유치 이후 흔들림 없이 준비해 왔다”며 “총리께서 여덟 번이나 경주를 찾아 점검해주신 덕분에 APEC뿐 아니라 경북과 경주의 국제적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경북도는 수송·숙박·의료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운영하며 행사 종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행사 이후에도 정상회의장과 전시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을 한 달간 그대로 보존해 국민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보배섬 국화축제’ 개막식

진도군은 ‘2025 보배섬 국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27일 오후 5시 진도개테마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배섬 국화축제의 주제는 ‘꽃빛 활짝! 별빛 반짝! 진도에서 만나게’이며, 진도개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군청, 철마공원, 향토문화회관이 형형색색의 국화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는 총 15만 본의 국화로 만든 국화작품이 전시되며, 특히 ‘희망을 찾아 떠나는 보배섬 진도 바다 여행’을 주제로 연출한 특별 전시 공간은 진도의 자연과 국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완도군

맨발걷기 명소 ‘신지 명사십리’

전남 완도군의 신지 명사십리가 지난 ‘24년 10월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공식 선포되며 맨발 걷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는 3.8km의 모래 해변과 더불어 1km의 황토길, 해송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이다.

특히 모래 입자는 부드러운면서도 적당한 자극을 줘 지압 효과가 뛰어나며, 황토길은 흙의 온기와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신지 명사십리는 ‘공기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도시에 비해 50배 이상 풍부해 걸으며 기후 치유를 하기에도 적합하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창원시-콜롬비아

글로벌 비즈센터 남미 확장 논의

창원시는 지난 24일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로드리게스 주한 콜롬비아 대사의 창원시 방문으로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과 글로벌 비즈센터 남미 거점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 14일 열린 창원시-콜롬비아 교류 간담회의 후속 행사로, 창원의 조선·전기 산업과 콜롬비아의 에너지·자원 산업을 잇는 실질 협력의 첫걸음이자 양국의 신뢰와 교류를 심화하는 자리가 됐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佛 파리 본따 안심 통학로 조성

부산시는 최근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부모, 시민단체, 교통·교육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프랑스 파리와 같은 ▲차 없는 길 ▲보행자 전용 보도 ▲보행자 안심 도로, 3가지 사업유형을 통해 안심 통학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사업 유형에 대한 구·군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나 학생·학부모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식

산림 바이오 산업 현재·미래 공유
산림 생명자원 고부가가치화 협력

경남도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도내 산림 관련 단체, 임업인, 바이오 기업,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남 산림 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산림 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미라 산림청 차장,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산림 관련 단체장, 산림 바이오 기업 대표 및 지역 임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경남도 산림바이오센터는 2020년 산림청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사전 행정 절차 수행 등 4년간의 공사를 거쳐 문을 열게 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

APEC 글로벌 CEO ‘포항경주공항’ 이용

기업인 1700여명 이용 예정

포항경주공항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글로벌 CEO 전용 공항’으로 운영된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존슨앤드존슨 호아킨 두아토 CEO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세계적인 기업인 1700여 명이 APEC 기간 중 전용기를 이용해 포항경주공항을 통해 입·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28일부터 31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25 APEC CEO Summit’ 참석차 경북 경주를 방문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포항경주공항을 임시 국제선 기능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4월 APEC CEO Summit 추진단의 SK그룹 최태원 의장이 포항경주공항을 ‘글로벌 CEO 전용 공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포항경주공항,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기관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점검 회의와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4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포항경주공항을 방문해, APEC 대비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입·출국장 내 CIQ 시설과 절차를 점검하는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해양문화관광도시 도약 준비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쇼 등
外人 관광객에 해양관광 매력 알려

포항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첨단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대규모 해양축제와 K-컬처 마케팅을 통해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류형 관광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9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APEC 2025 정상회의 기념 포항불꽃쇼’가 열린다. ‘그랜드 로보틱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화려한 불꽃과 드론 아트가 펼쳐지며, 내달 1일에는 송도해수욕장 해안선을 따라 낙화놀이와

미니 불꽃쇼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영일대해수욕장과 동빈문화장고에서는 철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 열리고,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에서는 ‘포항국제음악제’, 송도해수욕장에서는 ‘해양미식축제’ 등 다양한 해양문화행사가 잇달아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APEC 회원국 대표단과 외국 관광객에게 포항의 역동적 도시 이미지와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숙박플랫폼 ‘NO L’과 협업해 회의 기간 동안 포항 지역 펜션과 풀빌라 이용객에게 4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 1천 장을 선착순 제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제인 전용 크루즈 ‘플로팅 호텔’ 이용객을 위한 포항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해남 솔라시도 산업용지 부지 조성공사

전남도, AI 컴퓨팅센터 등 조성

전남도는 과기정통부의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와 오픈AI·SK 인공지능 전용데이터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산업용지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부지 조성 공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솔라시도는 2005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 온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해남 구성지구·영암 삼호지구와 삼포지구 등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매립지여서 연약지반이 존재한다.

산업시설 용지 중 남쪽 데이터센터(예정 부지) 방향은 119만㎡ 중 78만㎡

가, 북쪽 골프장과 주택 단지 등의 계획부지는 278만㎡ 중 246만㎡가 연약지반이다. 해당 지역 연약지반 처리공사에는 267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전체부지가 아닌 사업이 예정된 부지를 우선으로 연약지반 처리 등의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민관 출자와 정책금융 대출 등을 합쳐 총 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2028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부지 제공 시기를 내년 4월로 보고 해당 기간 내 부지 조성 기반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